

**예표를 통해 밝혀지고 전달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내재적인 계시**

10/31 월요일

아침의 누림

엡 3:9-11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10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엡 5:32

32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창 1:26-27

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27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계 21:1-2

1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 14:6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가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성경 전체의 실질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을 거듭해서 읽더라도 그 중심 사상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경륜은 즉시로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열어 주는 열쇠가 된다. ...성경의 모든 것을 열기 위해, 우리에게는 이 일관된 열쇠가 필요하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년, 2권, 교회 — 그 영의 복사판, 3장, 677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신약에서 구약의 예표가 성취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구약에 있는 것은 일종의 예표 곧 일련의 예표들이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구약의 예표의 완전한 성취이다. 따라서 성경 전체 곧 구약과 신약은 먼저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림이고, 그다음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완전한 정의와 성취이다. 한편으로 우리가 구약을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신약의 정의로 가야 한다. ...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신약을 알기 원한다면, 시간을 들여서 이 모든 그림을 살펴봐야 한다.

성 어거스틴(Saint Augustine)은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 그림과 정의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분명한 기본 원칙을 형성한다.

형제회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교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교회의 예표였다고 말했다. ... 형제회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 되어 있던 것이 교회가 로마 가톨릭교회에 포로 되어 있던 것의 예표임을 강하게 강조했다. ... 주 예수님은 로마 가톨릭교회를 이세벨이라고 언급하셨고 (계 2:20, 마 13:33), 또한 비밀, 큰 바빌론이라고 언급하셨다(계 17:5). ... 형제회는 이스라엘이 포로 되었던 것이 교회가 포로 되었던 것의 예표임을 보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이 마르틴 루터에게서 시작된 교회의 회복의 예표임을 보았다.

비록 형제회는 이것을 보았지만, 구약의 왕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의 예표라는 것은 보지 못했다. ... 그들은 심지어 이 용어를 사용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대신하였다. ‘경륜’에 해당하는 ‘이코노미(economy)’라는 영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 (oikonomia)’라는 헬라어 단어를 영어화한 것이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코노미(economy)’라는 영어 단어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돈과 관련해서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말할 때 그러한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성한 안배로서, 그분의 목적인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그분의 선한 기쁨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형제회 교사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교회 전체의 예표에 불과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예표이다. 이 경륜의 성취는 신약에 있다. 신약은 구약의 왕들이라는 예표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제시한다. ... 하나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6권,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에 따른 생활을 삶, 1장, 104쪽)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중심과 실재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기록이다.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다. 이 두 항목이 성경의 기본 구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어떤 책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러한 관점을 붙잡아야 하는데, 특히 열왕기상·하에 대한 ‘라이프 스타디(생명 수업)’ 훈련을 할 때 그러하다. 겉으로 볼 때, 이 두 권의 책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이다. 사실상 이 책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들이다. (열왕기상·하 라이프 스타디, 1 장, 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6 권,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에 따른 생활을 삶, 1-2 장; 열왕기상·하 라이프 스타디, 1-4, 6 장

11/1 화요일

아침의 누림

마 16:16, 18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엡 1:22-23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엡 4:16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사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딤후 1:4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눅 24:44-45

4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말한 것, 곧 모세의 율법과 신언서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5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생각을 열어 주시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마 13:35)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16:18, 고전 3:16, 엡 2:21-22) 그리스도(마 12:42)를 예표하고, 성전은 그리스도(마 12:6)와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건축물인 교회를 예표한다. 이 두 가지,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과 실재와 목표이다.

솔로몬과 그가 건축한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뚜렷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러한 역사에서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한다. 따라서 솔로몬과 그가 건축한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에서 예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성취되는 것과 매우 많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공통적이다. 우리는 역사서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열왕기상·하 라이프 스타디, 6 장, 5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읽을 때,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들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를 보아야 한다. 이 연결 고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러한 연결 고리가 왕들의 역사에 나타나는데, 왕들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이기는 이들인 신언자들이 포함된다. 신언자들은 거둬서 왕들을 돕거나 다루었다. 예를 들어, 나단은 다윗을 돕기도 했고 꾸짖기도 했다. 엘리야는 아합을 다루었고,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기적을 행했으며,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도왔다.

이사야서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두 개의 짧은 예언이 있다. 이사야서 7 장 14 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한다. 이사야서 9 장 6 절은 한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아버지라 불리실 것임을 말한다. 이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작은 아이가 되셨음을 계시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곧 영원하신 아버지는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이 필요했다. 이사야서 53 장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는 장이다. 인성

안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사람의 구속자로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속하심으로 구속된 사람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확대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경륜을 완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과 확대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예표에서 왕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사람을 그분 자신께로 구속하심으로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 영원토록 우주적이고 단체적인 그분 자신의 표현을 얻으시는 것과 연결된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에게 일하심으로 그들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생명주시는 영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는 영과 함께, 생명 주시는 영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 계심을 보는 것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심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되신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이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며 결국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이제 우리는 매일 모든 일을 우리의 영 안에서 해야 한다.(열왕기상·하 라이프 스타디, 18 장, 140-14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4 년, 3 권, 하나님의 경륜, 1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4 권,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영문판, 1-2 장

11/2 수요일

아침의 누림

시 2:6, 12

6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시리라.

12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러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너희가 길에서 멸망하리니 그분의 진노가 느닷없이 불붙기 때문이다.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

신 8:7-8

7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8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수 1:5-6, 9

5 너의 일생 동안 아무도 너와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도 않고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6 강해져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9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더냐? 강해져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 1:2

2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입니다.

사 9:6

6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서른아홉 권에 걸쳐서 비유적으로 묘사되지만, 이 구약은 오직 예표와 역사와 시가와 신언이라는 네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예표 부분은 다섯 권이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이다. 역사 부분은 열두 권이며 여호수아기부터 에스더기까지이다. 시가 부분은 다섯 권이며 욥기부터 아가까지이다. 신언 부분은 열일곱 권이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이다. ... 구약 서른아홉 권은 세 무리의 ‘다섯’과 두 무리의 ‘열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 다섯 권의 예표서와 열두 권의 역사서와 다섯 권의 시가서와 또 다른 다섯 권의 대신언서와 열두 권의 소신언서가 있다. ... 우리는 구약의 이 네 부분의 내재적인 의미를 보고자 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삼일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움직이심, 2 장, 8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예표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과 둘레이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밝혀 준다. 그것들은 또한 삼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축복과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밝혀 준다.

여호수아기부터 에스더기까지 열두 권의 역사서들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이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서 차지하고 물려받고 누리도록 그들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밝혀

준다. 이 책들은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실패들을 밝혀 준다. ... 이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 사람들인 우리를 향한 일종의 경고이다.

구약의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다섯 권뿐이다. 이 책들은 사람이 추구해야 할 온전함이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바로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밝혀 준다. 이 한 문장은 욥기의 중심적이고 내재적인 계시를 담고 있다. 시편은 이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육체 안에 계신 한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 되셨는데, 기름부음 받으신 이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분이시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며 높이는 분이심을 밝혀 준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 중의 허무임을 밝혀 주고, 아가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에게 유일한 만족이시라는 것을 밝혀 준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함으로 추구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족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열일곱 권의 신언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앞의 세 범주의 책들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는(사 53 장) 하나님-사람(7:14, 9:6)이 되시려고 오실 것임을 밝혀 준다. 그 책들은 또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결될 것임을 밝혀 준다(사 65:17, 66:22, 벧후 3:13, 계 21:1).

위의 모든 요점들은 구약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하시는 분이심을 생생하게 묘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표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과 돌레이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백성에게 신성한 복이심을 본다. 역사서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백성이 취하고 차지하고 물려받고 극도로 누려야 하는, 심지어 왕의 직분에 이를 정도로 누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이심을 본다. 시가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온전함이시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얻고 누려야 할 유일한 만족이시라는 것을 본다. 그 다음 신언서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결되는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사람이 되셔서 그분의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신 것을 본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삼일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움직이심, 2 장, 89-9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삼일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움직이심, 2-3 장

11/3 목요일

아침의 누림

요 7:39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행 1:8

8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롬 12:5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롬 1:3-4

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롬 12:4-5

4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계 21:2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비유적으로 묘사된 것임을 보았다. 신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질적인 성취이다. ... 묘사는 그림 곧 사진이다. ... 구약은 마치 비디오와 같다. 신약은 실물이다. ... 성취인 그 사람은 그의 사진과 정확히 똑같다. 이것이 바로 세 부분, 곧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된 신약 스물일곱 권이다. 복음서는 네 권이고, 사도행전은 한 권이며, 서신서는 스물두

권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삼일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움직이심, 3 장, 94-9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 사복음서의 중심적이고 내재적인 계시를 보고자 한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이 계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셨다. 그분은 또한 완결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사복음서의 끝에서 그분은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요 20:22).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15 장 45 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아담 곧 체현되신 하나님, 즉 사람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한다.

삼일 하나님은 육체 되심이라는 과정을 거치심으로써 하나님-사람이 되셨고, 인간 생활이라는 과정을 거치심으로써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셨으며,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심으로써 그분께서 잃어버린 창조물을 구속하시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으며,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심으로써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신다. 따라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안으로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분배되신다.

사도행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실재이신 그분 자신을 확산시키시는 것을 밝혀 준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을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받아들였다. 사실상 이 영은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실재이시다.

사복음서에서 교회는 오직 두 번, 곧 마태복음 16 장 18 절과 18 장 17 절에서만 언급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몸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사도행전은 교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서신서에서만 언급된다. 사실 처음 스물한 권의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밝혀 주는 데 비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몸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을 밝혀 준다. 로마서 12 장 5 절은 신약 전체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하는 절이다. 이것은 모든 서신서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하는 다른 서신서들에는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있다. 이 네 권의 책, 곧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신약의 주된 책들이다. 만일 이 책들을 없애 버린다면 신약은 공허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을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하시고, 이 몸이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확대와 표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임을 밝혀 준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삼일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움직이심, 3 장, 95-9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하심, 1-2 장

11/4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5:7

7 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리지셨기 때문입니다.

고전 10:6

6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은 그들이 악한 것들을 열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엡 1:10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전 12:13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시다.

출 25:8

8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라.

속 2:10

10 시온의 딸아, 환호하며 기뻐하여라. 나 이제 가서 네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엡 2:20-22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체적인 몸을 갖는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몸의 예표였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나아가시어, 그분 자신을 단체적인 이스라엘 안으로 일해 넣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성막으로 예표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이다. 이 단체적인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4 권,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영문판, 21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 시대 이전에, 즉 주님께서 육체가 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한 백성을 선택하셨다. ...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다. 그러고 나서 모세 시대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적어도 이백만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족속이 되었다. 그때 이후로 그들은 신약의 하나님의 선민인 교회의 예표가 되었다. ...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신약에는 교회가 있다. ... 이 두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 곧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묘사해 준다. ...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예표와 그림과 그림자일 뿐이다. ...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백성이 된 후에, 그들은 결국 이집트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손안으로

떨어졌다. ...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사탄의 손안으로, 사탄의 세상 안으로 떨어졌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구속은 하나님의 타락한 백성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탄의 손아귀와 세상과 결국 그들 자신에게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자신과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먼저 어린양이 죽음을 당하고 그 흘린 피가 이스라엘집에 뿌려진 것을 본다. 그것은 유월절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하나님 곧 공정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써 법리적인 어떤 것을 이루시어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셨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었다.

그러한 구속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행사하시어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손과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이 되시려고 오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오셔서 그들을 더욱더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지를 나타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 장에서 우리의 유월절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하시고 처리하심으로써 우리를 넘어가실 수 있었다. ... 유월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은 무교절을 지켰다(8 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구속받은 후에, 그분의 구원 안에서 죄 곧 누룩이 없어야 하고, 누룩없는 명절을 지내야 함을 정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었고, 이 시작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이로써 여러분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은 예표이고, 교회에 관한 것은 성취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약의 끝에서 주 예수님은 타락한 교회를 이세벨이라 부르셨다(계 2:20). ... 타락한 교회는 이세벨이 되었고 큰 바빌론 곧 비밀이라 불린다(17:5). ... 이스라엘의 결말은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이었다. 결국 그들은 바빌론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17 장에서 주님은 타락한 교회를 큰 창녀, 큰 바빌론, 창녀들의 어미라고 부르셨다(1, 5 절).

이것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예표의 성취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는 교회의 예표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6 권,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에 따른 생활을 삶, 2 장, 110-11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3-5 장

11/5 토요일

아침의 누림

롬 5:17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벤전 2:9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 14:2

2 왜냐하면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고, 또 여호와와 지면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대를 선택하시어 그분의 개인적인 보물인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 1:12-13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계 5:10

10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롬 5:21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딤후 2:12

12 우리가 견딘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계 3:21

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처음 두 왕인 다윗과 솔로몬은 두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중요한 예표이다. 먼저, 다윗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출생 때부터

고난받으셨다. 그분의 삶은 가장 비천한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났다. ... 다윗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다윗도 어려서부터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강탈하는 원수들을 정복하고 좋은 땅, 즉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터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 광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이것은 천년왕국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이 두 예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관계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분명한 증거이다.(열왕기상·하 라이프 스타디, 1 장, 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스라엘은 주로 좋은 땅을 누리고 있었다. ... 좋은 땅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곧 가장 높은 사람들은 왕들이었다.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아 왕들이 되므로, 이 왕들은 신약의 믿는 이들의 예표이다. 신약의 모든 믿는 이는 왕이며 제사장이다(벧전 2:9, 계 1:6, 5:10, 딤후 2:12).

왕들과 제사장들은 모두 하나님의 대표 권위이다. 하나님의 대표 권위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자로 구성된다.

신약에서 모든 믿는 이는 구원받고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해 말할 때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이 신언자들이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왕들이고 제사장들이며 신언자들이다. 구약의 왕들은 예표이고, 이 예표는 왕들인 신약의 믿는 이들에 의해 성취된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리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5 장 17 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1 장은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으로 오셨을 때 은혜가 왔다고 말한다(14, 17 절).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것은 은혜가 온 것이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 그것은 단지 넘치는 은혜만이 아니라 항상 증가하는 넘치는 은혜이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넘치는 선물을 받았다. 이 선물은 우리를 법리적으로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 곧 은혜와 의를 받았다. 이것들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생명 안에서 왕들이 되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왕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합당한 수준에 아직도 이르지 못한 것이다. ...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겨우 ‘1 인치’ 높이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제한이 없으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왕의 직분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언자들과 제사장들인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다스리는 왕들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그분은 직접 다스리시지 않는다. 그분은 왕들인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하여 다스리신다. 신약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왕들이라는 예표를 성취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고 요소이신 하나님으로 변화됨으로써 그러한 왕들이 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살지 않으며,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나 육체로 살지 않게 된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신 하나님으로 살게 된다. 믿는 이들의 생활은 이처럼 인간적이지만 신성한 생명을 사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몫, 곧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왕들이 될 수 있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6 권,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에 따른 생활을 삶, 2 장, 112-11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1 권, 하나님, 1-2, 14-16 장; 신약의 결론, 12 권, 교회, 189, 230 장

2022. 10. 31 ~ 2022. 11. 5

단체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1 년, vol. 1, “인생의 의미와 올바른 헌신”, 5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3-4장
열왕기상·하 라이프 스타디,
1-2장

찬송: 947 (英) 난 오늘 훈련해 (中:751)

- 1 오-늘은 훈-련해 주- 왕국 생활
장래 보상돼 주님과 다스리리
주의 지혜로- 오늘은 훈련 받고
주의 계획을 성취해 공의 이룩.
- 2 그-날에 주- 위해 통-치하리라
왕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네
우리 주의 왕-국에서 다스리며
주의 신성한 왕권을 표현토록.
- 3 하-나님 권-위에 복-종함 배워
오늘 주님의 다스림 처리 받아
그날 하나님- 권위를 함께 나눠
주와 공동 왕 되어서 다스리리.
- 4 자-신에 업-격해 공-의 따르며
다른 이에겐 은혜로 관대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늘 즐거워 해
항상 왕국의 실재를 살아야 해.
- 5 이-렇게 살- 때에 주- 강림하셔
그의 왕권을 상으로 주시리라
우릴 통해 그- 공의를 나타내며
천사들에게 지혜를 보이시리.
- 6 왕-국을 위-하여 달-린 사도들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했네
우리 또한 이- 왕국을 얻기 위해
충성 다하여 앞으로 전진하리.
- 7 왕-국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 훈련받고 장래 상 얻도록
왕국 실재를- 오늘은 훈련하고
장래 왕국의 실현이 보상 되게.

11/6 주일

아침의 누림

엡 1:15-23

- 15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서,
16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며
19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